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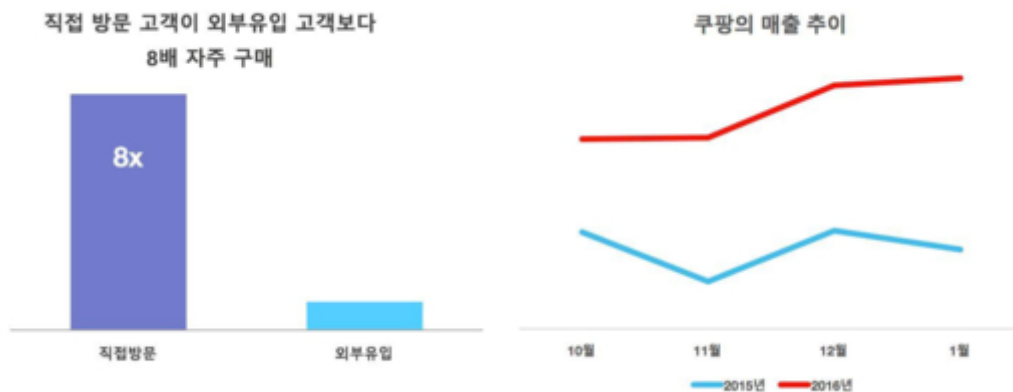
산업

쿠팡 "네이버 상품검색에서 빠진 후에도 매출 10% 늘어"

조선비즈 | 박수현 기자

입력 2017.02.27 10:35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은 네이버에 상품검색 데이터베이스(DB) 제공을 중단한 이후로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매출이 전월 대비 약 10%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외부 웹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쿠팡 앱 등을 이용해 쿠팡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쇼핑 DB 제공을 중단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을 직접 방문한 고객들의 구매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네이버 상품검색을 통해 발생한 매출은 2%대에 그쳤다. 직접 방문 고객의 구매 빈도 역시 네이버 상품검색을 이용한 고객보다 8배 높았다.

카틱 나라얀 쿠팡 마케팅 VP는 "장기적인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로 고객에게 계속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